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 청산 위해 '전자결재' 의무화

### 조합 생산문서 100% 전자화...총 423개 정비구역 의무사용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 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청산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cleanbud.esoul.go.kr:447)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했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 된다.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

각 조합 입·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 전표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재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불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 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후번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입·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한다.

또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지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콜센터'(02-2133-7282)도

지속 운영해 시스템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접속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deanup.seoul.go.kr)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며 "조합원들도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감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명인에게 배우는 전통 장 담그기' 무료강좌

서울시에서 장 담그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음력 정월에 전통 장 담그기 무료강좌를 개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무료강좌를 다 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강좌에 참여할 300명(1회 100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명인들이 된장, 고추장 담그기 강의가 진행된다.

12일에는 서울에서 3대째 장 담그기 내림솥씨를 지닌 조숙자 강사가, 13일에는 발효음식과 약선음식의 전문가인 고은정 강사가 ▲장 담그기와 ▲장 가르기 ▲장독대 관리법 등을 강의한다.

14일에는 4대째 서울 고추장 내림솥씨를 지닌 김복인 강사가 ▲떡운 보리고추장 담그기 ▲찰살고추장 담그기 ▲고추장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뉴스스



올해 지방병무청 도입된 흥채인식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소에서 올해 지방병무청에 1대씩 새로 도입된 흥채인식기를 병역의무자가 체험하고 있다. 흥채인식기는 급수가 늦게 나온 생동이 중 1명이 다른 생동이 대신 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울 동네·골목길·아파트 나무심기 15억 투입

### 동네숲(골목길) 5곳, 공동체정원 보조금 45곳 선정



서울시는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무심기사업인 '동네숲(골목길) 가꾸기사업'과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네숲(골목길) 가꾸기사업은 어둡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특색 있는 보행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내 골목길 5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개소당 최소 3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제외대상지는 5년 이

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 조경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은 10인 이상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인 이상 공동체(주민, 조직)면 서울시민뿐 아니라 학교가 서울에 있거나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는 400곳에 최대 200만원씩 지원된다. 보조금은 총 45곳에 개소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3월 중에 선정된다. 선정된 단체·공동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대상지와 단체·공동체 수행사항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지원(신청) 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또는 참여공동체 소개서 등)을 내려 받은 후 각 1부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조정과(전화 02-2133-2107) 또는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 꽃으로 피다 5년째를 맞아 보다 성숙한 모빌리티 시민공동체 녹색도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각 부서간의 벽을 허물어 협업함으로써 녹색갈등이 없는 서울, 꽃과 초록을 일상 접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 "설 연휴 쓰레기 2월6일부터 버리세요"

### 서울시, 2월2~5일 쓰레기 배출 자제...종합대책 추진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2일부터 5일까지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는 2월6일부터 수거된다.

시는 28일 설 명절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9일부터 2월7일까지 3단계로 진행된다.

시는 29일부터 설날 연휴 전 2월 1일까지 주요 도심지역에서 일제 대정소를 실시한다. 자치구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만9416명이 참여한다. 골목길은 주민 2만 2543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청소가 나간다.

또 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다. 다만 19개 자치구에서는 연휴 기간 중 하루 더 배출이 가능하다.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월2일은 중구·은평구·관악구에서, 3일은 종로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강동구에서, 5일은 용산구·강북구·도봉구·서초구·송파구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을 할 수 있다.

연휴기간에는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과 총 688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이 운영된다. 청소상황실은 청소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자치구는 환경미화원 총 1만 4616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한다.

이들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한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2월6일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수거한다. 각 자치구별로 1만5789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 대정소를 실시한다.

구분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연휴 기간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수거작업이 재개되는 명절 마지막 날인 2월6일 또는 자치구별로 지정된 배출일에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전문직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